

# 국민의힘 친한-친운 '전면전 태세'

### 특별감찰관 추천 의원총회 예고...한동훈 대표 "차별화 된 메시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문제 해법으로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한 여론의 내용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이르면 다음 주 초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가 예고되면서 찬성파인 친한(친한동훈)계와 반대파인 친운(친윤석열)계가 전면전을 대비하는 모습이다.

한 대표는 "국회의 인사 추천 권한 관련 사안은 원내대표 소관"이라는 친운계의 반발에도 "원내든 원외든 당 대표가 총괄"한다며 조금도 물러설 기색이 없다.

최근에는 자신을 향한 반대 목소리를 "변화와 쇠

신을 방해하는 자해적 이간질"로 규정하며 역공에도 나섰다.

한 대표는 취임 100일을 맞아 오는 30일 열리는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그리고 친운계를 향한 압박 강도를 한층 높일 가능성이 점쳐진다.

한 대표 측은 27일 "확실하게 차별화하는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친한계는 또 이를 계기로 지난해 12월 이후 중단됐던 중진연석회의를 부활하고 상임고문단 회의도 수시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진·원로들과 접점을 늘리며 당내 영향력을 키우고 주도권을

잡겠다는 포석이다.

친한계의 공세에 친운계는 야당이 그동안 추천하지 않았던 북한인권재단 이사 문제를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과 연계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맞서는 형국이다.

친운계는 의원총회에서 그동안 한 대표의 행보를 관망하며 침묵하던 의원들이 한 대표의 당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를 지적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친운계 의원은 통화에서 "한 대표는 개인의 인기와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당이 지향하는 가치, 이념을 내뽐고, 원내 협상전략을 포기하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며 "곧 드러나겠지만, 많은 의원이 공감하는 지점"이라고 주장했다.

만약 의원총회에서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사상 초유의 표 대결이 이뤄진다면 당의 내용 사태는 한층 잡잡을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친한계에선 의원총회를 공개로 진행하는 동시에 한 대표가 의원총회에 참석해 의원들을 설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친운계도 한 대표를 성토했던 토론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두 계파가 정면충돌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극적으로 타협안을 도출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친한-친운 어느 한쪽도 과반을 차지하지 못해 표결 결과를 자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두 계로 분류되는 의원은 각각 20~30명 정도다.

극심한 후유증이 불가피한 표결을 피하기 위해 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의 '담판'을 통해 중재안을 마련하는 시나리오도 일각에서 거론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인근에서 열린 '역면접x국민의힘, 2030이 묻고 정당이 답하다'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영록 전남지사, 역사적 코리아 소사이어티 연설

김영록 전남지사가 호남지역 광역자치단체장으로는 처음으로 미국 유명 인사들로 구성된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초청을 받아 미국을 방문, 지난 25일 연단에 섰다. 1957년 한국전쟁 참전 용사인 제임스 밴 플리트 전 미합중국 육군대장이 설립한 코리아 소사이어티는 교육·협력·문화·정책 등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1992년부터는 한미관계의 우호증진에 기여한 인사에게 밴 플리트상을 시상하고 있다. 지금까지 주요 연설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2003년), 조지 W 부시 대통령(2005년), 정세균 전 국회의장(2016년), 문재인 전 대통령(2020년) 등이다. 김 지사의 연설문을 요약, 게재한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영록(왼쪽) 전남지사가 지난 25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코리아 소사이어티 강당에서 코리아 소사이어티 토마스 번 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존경하는 코리아 소사이어티 캐슬린 스티븐스 이사장님, 토마스 번 회장님과 회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광석 뉴욕한국문화원장을 비롯한 귀빈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전라남도지사 김영록입니다.

40년 전 1985년, 저는 뉴욕주 시라큐스대학교 맥스웰행정대학원에서 2년간 유학을 했습니다. 처음 방문한 미국에서 접하게 된 편리한 사회시스템과 합리적인 제도, 그리고 친절함 미국 국민들에게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때 보고 배운 모든 경험들은 제 평생 공직생활의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민주·인권·평화의 상징 김대중 대통령께서 나오자마자 고향 또한 전라남도입니다. 아울러 전라남도는 바다와 육지를 모두 품고 있어 산물이 풍부하고, 농업경제 시대에는 대표적인 곡창지대로 경제력이 낙낙해 오랜 세월 전란만 문화·예술을 꽃피워왔습니다. 이러한 문화·예술의 DNA를 이어받아 지난 10월, 드디어 우리 고향 출신 한강 작가가 대한민국 최초,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는 감동적인 기록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오랜 역사 동안 숭한 위기와 고비를 겪어왔고, 이를 새로운 기회와 도전의 계기로 삼으며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러한 성공 뒤에는 한 세기를 넘어선 미국의 우정 어린 도움이 있었습니다. 한미 양국은 동북아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한 지역 협력체를 만들어 가는 데 함께 노력하며,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여 동북아 평화의 수호자로서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선도할 수 있는 관계로 발전되어야 합니다. 한국은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아울러, 양국이 세계적인 기술 진보를 선도하고 있는 만큼 AI, 빅데이터, 칩, 로봇 기술 등 4차 산업 혁명 분야에서의 경제 협력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민주·인권·평화의 상징 김대중 대통령께서 나오자마자 고향 또한 전라남도입니다. 아울러 전라남도는 바다와 육지를 모두 품고 있어 산물이 풍부하고, 농업경제 시대에는 대표적인 곡창지대로 경제력이 낙낙해 오랜 세월 전란만 문화·예술을 꽃피워왔습니다. 이러한 문화·예술의 DNA를 이어받아 지난 10월, 드디어 우리 고향 출신 한강 작가가 대한민국 최초,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는 감동적인 기록을 만들어냈습니다.

전라남도는 역사적인 대전환기를 맞아 '가장 전라남도'라는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신념으로 제2의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철강·조선·석유화학 등 전통 주력산업과 함께, 에너지·우주항공 등 미래 첨단산업을 키워 세계와 경쟁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자연 자원 덕분에 전반기 해상풍력, 태양광, 그린수소 등 신재생 에너지가 선도하고 있는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이자, RE100 실현의 최적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은 말했습니다. "My great concern is not whether you have failed, but whether you are content with your failure." 링컨 대통령이 강조한 '실패에서 배우고 다시 도전하는 정신'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과 전라남도의 힘입니다. 앞으로 전라남도는 많은 미국 지방정부들과 인연을 맺고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협력하며 세계를 향해 더욱 힘껏 뛰겠습니다. 특히, K-컬처의 선도자로서 미국의 문화적 연결고리를 계속 이어가며 한국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려 나갈 것입니다.

오늘 귀한 자리를 허락해주신 코리아 소사이어티 관계자 여러분과 내외귀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野 '이재명 선고' 앞두고 2일 장외 투쟁

### '김 여사 특검법' 수용 촉구할 듯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이 국정감사 이후 윤석열 정부에 맞서는 장외 투쟁을 선언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2일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규탄하는 장외 집회(범국민대회)를 열고 여권을 향해 '김 여사 특검법' 수용을 거듭 촉구할 예정이다.

특검법에 반대하는 여당, 그리고 특검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 윤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해 여론몰이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또 민주당은 다음 달 14일 본회의에서 세 번째로 발의한 김 여사 특검법을 처리하고, 윤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면 곧바로 국회 재표결까지 마칠 방침이다.

민주당이 이처럼 11월에 윤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투쟁 수위를 높이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무관치 않다는 게 정치권의 일반적 해석이다.

이 대표는 같은 달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1심 선고공판(15일), 위증고사 혐의 1심 선고공판(25일)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두 혐의에 각각

징역 2년과 3년을 구형했다.

민주당은 법원이 이를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경우 이 대표는 정치적 부담을 덜고, 차기 대선 도전 행보에도 힘을 받는다.

반대로 민주당의 바람과 달리 유죄가 선고될 경우 이 대표는 적지 않은 정치적 타격이 예상된다. 상소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큰 만큼, 사법 리스크도 장기화한다.

민주당이 이 대표 1심 선고와 시기를 맞춰 특검법 표결과 재표결을 진행하는 동시에 장외 투쟁에 나서려는 것은 그의 사법적·정치적 고비에 쏠리는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는 한편, 당의 응집력을 다지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민주당은 다만 조국혁신당이나 진보당 같은 군소 야당의 '탄핵' 구호에는 공식적으로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저조하긴 하지만, 또 한차례의 탄핵 추진은 자칫 역풍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제1야당이 탄핵을 전면내 내세우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며 "실제 탄핵을 추진할지는 국민 여론을 보고 결정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 윤, 지지율 20% 최저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다시 기록해 20%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2~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 포인트)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율은 직전 조사(10월 15~17일)보다 2%포인트(p) 내린 20%로 집계됐다. 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지난 9월 2주 차 조사에서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20%)를 기록한 뒤 소폭 상승하며 20% 초반대를 유지해왔으나, 6주 만에 다시 최저치를 기록했다.

윤 대통령 직무 수행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1%p 오른 70%였다.

갤럽은 "대부분 응답자 특성에서 윤 대통령이 현재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고, 특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성향 진보층, 40대 등에서는 그 비율이 90%를 웃돈다"며 "여태껏 대통령을 가장 후하게 평가했던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긍정 48%, 부정 40%로 긍·부정적 시각차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2.4%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한국갤럽 홈페이지 참조. /연합뉴스

함께하는 100년 동행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꼭!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꼭 바로 바로 확인까지 꼭!

##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일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율 2023년 6월 기준))

**zgm** 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유 동 지 점 062)512-1984~5	유 덕 지 점 062)373-3235~6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치 평 지 점 062)381-8212~3	동 립 지 점 062)513-8521~3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빛 고 로 지 점 062)531-1213~5
쌍 촌 지 점 062)381-6551~2	운 암 지 점 062)527-3295~6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양 동 생 트 들 지 점 062)361-4472~4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상 무 동 지 점 062)372-3741~2	기 아 지 등 차 지 점 062)385-4977~8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로컬푸드(시정) 062)364-8400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